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

양명희
(중앙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본고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내용과 교수·학습을 주제로 한 학술지 논문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한국어교육 내용에서는 의미와 화용, 문학과 문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발음과 문법, 어휘에 대한 연구가 많기는 하나 아직도 더 연구되어야 할 주제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의 제시나 교육 방법의 검증이 매우 빈약하여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을 주제로 한 연구는 교육 내용보다 양적 연구가 더 부족할 뿐 아니라, 세부 주제에 있어서도 기능교육과 학습전략, 그리고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연구 주제와 비교하여 연구해야 할 주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한국어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 교사 요인에 대한 연구 등이 대폭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교육 내용, 한국어 교수·학습, 교육 과정, 교재 개발, 교사 요인

I. 서론

한국어 학습자들의 증가로 한국어교육 연구물이 축적되며 연구 동향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이미 일정한 기간별로 연구물의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어교육 분야는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그 지위를 자리잡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별로 학문사적 동향을 파악하거나 연구 주제별로 연구 과제와 지향점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 오래지 않다. 그간은 연구 동향보다 교육 현황에 대한 보고가 많았고, 최근 들어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¹⁾ 이러한 추세는 그만큼 한국어교육 연구 축적물이 많아졌기 때문이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연구자들은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고 이전 연구의 한계점이나 문제점 파악을 통해 발전된 연구를 할 수 있다.

한국학술정보(Riss)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학습자 언어권별로 국내의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면 단연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일 많다.²⁾ 이는 국내 한국 유학생의 국적별 분포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결과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동향 논문은 그 수가 많아지면서 오류, 습득 등 세부 주제별로 연구 동향을

1) 허영수·박지홍(2021:66)에 따르면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이다. 2001~2020년 한국어교육 동향에 대한 논저는 총 145편인데, 2001~2005년 4편(2.7%)이던 것이 2015~2020년에는 82편(56.6%)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연구 유형별로 보면, 학술지 논문이 133편(91.7%), 학위논문이 12편(8.3%)으로 학술지 논문이 많고,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방법은 2015년 이전에는 주로 연구자 개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분류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정성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텍스트 마이닝, 네트워크 분석 등 계량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2) 논문 제목에 ‘중국인’을 사용한 연구로 김희섭·최윤정(2009), 이정희(2014), 박영훈 외(2019), 유문명(2019), 주암 외(2019), 김민희(2020), 류연연(2020) 등이 있는데, 논문 제목에 특정 언어권을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루고 있는 논문 대부분은 중국인 학습자를 포함하고 있다.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고, 연구 방법도 정성적 분석 중심에서 계량적 연구 방법이 등장하였다.

중국에 이어 유학생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인데, 남은영 외(2019), 응웬 티 꾸잉안(2020)에서 보듯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구 동향 논문은 비교적 최근에 발표되고 있다. 남은영 외(2019)는 2000년부터 2019년 2월까지 베트남 학습자와 관련된 국내 논문 총 337편(석사논문 212편, 박사논문 9편, 학술지 논문 116편)을 수집하여 주제별 분석을 한 연구이다.³⁾ 응웬 티 꾸잉안(2020)은 1990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한국과 베트남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물 390편(학위논문 237편⁴⁾, 학술지 논문 122편, 보고서 6편, 단행본 25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은영 외(2019)와 비교하면 기간과 발표 지역, 연구물의 형태가 더 넓다. 각각 분석한 연구 동향에 의거하여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시급한 연구 주제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 의해 양적인 주제별 분석이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부 주제별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등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주제는 ‘한국어교육 내용’ 분야로(64.98%, 219편), 어휘(30.59%)>발음(26.02%)>문법(22.37%)>화용(8.67%)>문화(8.21%)>문학(4.10%) 순이며, 다음으로 교수·학습(27.29%, 92편)이라고 한다.

4) 이 중 박사논문은 24편, 석사논문은 213편이다.

5) 남은영 외(2019:116)에서는 베트남 학습자에 대한 기초 조사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다.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 학습자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대조 연구, 베트남 학습자의 오류 분석, 다양한 교수 방법 개발을 제시하였다. 응웬 티 꾸잉안(2020:172~173)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전문적인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므로 베트남 학습자의 특징에 맞춘 교재 개발 및 한국어 교육과정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II. 연구 대상 및 주제 분류

남은영 외(2019), 응웬 티 꾸잉안(2020)가는 학술지 논문 외에도 학위 논문과 교재, 단행본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대상 논문의 수가 많아 일단 국내 학술지 논문만을 대상으로 주제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남은영 외(2019:107)에서는 강승혜(2017)에서 제시한 주제별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주제를 분류한 바 있다.

〈표 1〉 연구 동향 주제별 분류 기준⁶⁾

번호	주제영역	하위주제	상세 내용
1	한국어교육 일반	한국어교육 현황	베트남 한국어교육 기관의 교육 현황 및 프로그램 소개
		다문화	다문화 가정 관련 한국어교육
		한국어 정책	한국어 언어(교육) 정책
2	한국어교육 내용	문법	한국어교육 문법, 문법항목의 교수법, 정서법
		어휘	어휘, 관용표현, 한자어 교육 등
		화용	한국어의 화용적 측면
		발음/억양	발음의 음성학적 접근 및 베트남 학습자 대상 발음 교육
		문학	시, 소설, 수필 등의 문학 교육
		문화	한국 문화교육, 문화교육 현황
3	교수·학습	교수법 일반	다양한 교수 전략
		기능별 교수	언어 기능별 교수 방안
		학습자 요인	언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언어 학습 과정에 관련된 주제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분석

6) 남은영 외(2019:107)의 표를 옮겨온 것이다.

번호	주제영역	하위주제	상세 내용
3	교수·학습	습득 및 학습	언어 학습 과정 관련 연구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습자 요인 제외) 학습자 오류 분석 중간언어(변이)
		한국어 평가	TOPIK 관련
		한국어 교재	교재 개발 원리 및 구성, 교재 분석
		웹기반/멀티미디어	웹 기반 한국어교육, 멀티미디어 활용 방안
		학습자사전/말뭉치	학습자용 사전 개발 및 현황 등
	교사 요인	교사 대상 연구/교사 교육 관련	

본고에서는 연구 주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영역의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표 1>의 기준을 따르되, 습득 및 학습으로 다루어진 오류 분석과 중간언어 연구 등은 그 내용에 따라 한국어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교수법 일반에 포함된 교수·학습전략 중 기능교육과 관련한 것은 기능교육에 포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학술정보(Riss)에서 ‘베트남인 학습자’를 핵심어로 검색하여 121편의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였고(검색일: 2023년 1월 3일), ‘베트남인 학습자’를 제목에 넣은 첫 논문은 윤혜숙(2003)으로 나타났다.⁷⁾ 이 외에도 해당 논문의 참고문헌을 통해 27편의 논문이 추가되었다.

7) 남은영 외(2019:112)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와 관련한 교수·학습 연구가 장미원(2000)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미원(2000)은 한국어-베트남어 사전 편찬에 대한 연구이다.

Ⅲ. 학술지 논문의 주제별 분석

1. 한국어교육 내용 연구

1-1 발음

<표 1>에서 보듯 한국어교육 내용 연구는 크게 발음/억양, 어휘, 문법, 화용, 문학, 문화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학술지에 실린 발음교육 연구는 내용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발음교육에 대한 연구사는 장혜진(2020)의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연구 교육의 성과와 과제’가 발표되어 이를 살펴보고, 본고에서는 이후 발표된 논문의 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장혜진(2020)에서는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총 83편(학술지 32편, 석사논문 46편, 박사논문 5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발음교육의 내용에서는 분절음 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다수이고 그 가운데 단모음 연구와 폐쇄음, 파찰음, 유음 교육 연구가 많으며, 음운 현상 교육 연구에서는 오류 양상을 관찰하거나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억양 교육 연구에서는 한국어 억양 실현에 나타난 음성적 특성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 향후 연구 주제로 분절음 및 음운 현상의 확대, 억양의 문법적·화용적 기능 연구 심화, 음성학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장혜진은 학술지에 실린 발음교육에 대한 연구(31편) 중 장혜진(2020) 외에도 총 6편의 발음 교육에 대한 성과를 발표한바(2018가, 2018나, 2018다, 2019가, 2019나, 2022), 가장 활발하게 베트남인 학습자의 발음교육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이다. 단모음, 어두 파찰음, 어두 폐쇄음, 음운구, 어두 치경마찰음을 대상으로 실험음성학적 연구와 음향적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장혜진(2020:260)에서도 언급하였듯 베트남인 학습자의 발음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험음성학에 기반한 연구가 인지와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⁸⁾

장혜진 다음으로 베트남인 학습자의 발음교육 연구를 많이 한 연구자는 박시균이다. 박시균·김지영(2019가, 2019나, 2019다)과 박시균·류연이(2019), 최경복·박시균(2021)은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 또는 한국어 음운(폐찰음, 어중 경폐쇄음, 단순모음, 유음)에 대한 인지 및 산출 실험을 통하여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음성학 연구자들이 한국어교육 연구에 참여하여 보다 전문적인 발음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장혜진(2020) 이후에 발표된 발음교육 연구로는 김윤희(2021), 이현희·권경근(2022), 장경남·유광복(2022), 최효선(2022), 최지영(2022), 안성민(2022), 이경훈(2022) 등이 있다. 김윤희(2021)는 /ㄹ/ 발음의 음향음성학적 분석, 이현희·권경근(2022)은 연음 현상, 장경남·유광복(2022)은 겹받침 발음 비교, 최효선(2022)은 이중모음 발음 분석에 대한 연구이고, 안성민(2022)은 이중모음 ‘ㄴ’의 오류 분석이다. 최지영(2022)은 중국인과 베트남인의 어간말 자음군의 실현 양상을 비교한 연구이고, 이경훈(2022)은 억양 시각화 훈련이 말하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로서 억양에 민감한 베트남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억양 시각화 훈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장혜진(2020:260)에서도 언급하였듯 베트남인 학습자의 발음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경훈(2022)처럼 그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수립하여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더 나와야 할 것이다.

8) 이후 발표된 장혜진(2022:155)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어두 치경 마찰음을 실험음성학적으로 분석한 후, 베트남인 학습자의 마찰음 발음 교육에서는 /s/의 기식 구간을 길게 발음하게 하여 /s/와 /ss/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며 마찰음의 후행 모음 종류에 따른 조음 위치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1-2 어휘

베트남인 학습자의 어휘교육에 대한 연구는 어휘 오류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교육 방안을 제안한 연구들이 많다. 윤혜숙(2003), 김지숙(2007), 류 투 안(2011), 이병운(2012), 응웬티후웅센(2014), 박종호(2017), 남미정(2020) 등이 그런 예인데, 윤혜숙(2003)은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로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과 재학생과 졸업생 136명의 211편 작문 자료를 분석하여 모국어의 긍정적 전이를 보이는 true friends와 부정적 전이를 보이는 false friends로 어휘를 구분하여 어휘교육의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지숙(2007)은 국내 대학에 유학 온 중고급의 베트남인 학습자 15명의 쓰기 자료를 대상으로 어휘 오류 외에 음소 체계와 관련된 표기 오류, 문법 요소 오류로 오류를 유형화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어휘 오류의 경우 유의어 오류가 많은 것을 그 특징으로 들었다. 이병운(2012)은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과 3, 4학년 학생들의 작문 자료(448부)를 대상으로 모국어의 간섭현상에서 오는 오류를 추출하고 어휘적 오류를 크게 형태적 오류와 의미적 오류로 나누고 이러한 오류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사들에게 발음과 표기법 교육의 강화, 오류 목록을 이용한 한자어 교육, 어휘범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응웬티후웅센(2014)은 베트남 대학의 한국학과 2, 3학년 학생들의 작문(90편)을 대상으로 한자어 오류를 분석하여 ‘한자어 간 의미 차이로 인한 오류’, ‘한자어의 동형 이의로 인한 오류’, ‘한자어의 동형 이품사로 인한 오류’로 유형화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인 학습자의 어휘 오류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자어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에도 한국의 한자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일례로 류 투 안(2011)은 중국어 어휘를 받아들이며 서로 달라진 한국어 한자음과 베트남어 한자음을 대조한 후 베트남인 학습자가 한국 한자어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한자음을 성모와 운모로 분리한 후 대표음을 세워 한국 한자음을 인식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 타잉 하이(2017)은 유의어 교육에 대한 연구로 한국어와 베트남어 어휘의 상당수가 한자어임에 기반하여 한국어 유의어쌍과 베트남어 유의어쌍이 대응되는 예, 한국어 유의어쌍에 베트남어의 한 단어가 대응되는 예, 한국어의 한 단어가 베트남어 유의어쌍에 대응되는 예로 유형화하여 유의어 목록을 단계별로 선정하고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손유진·장혜진(2021) 역시 동국대학교 한국어 교재인 ‘함께 배워요 한국어 1’에 나타난 어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213개의 한자어에 대한 베트남어 대응 관계를 분석하여 한자어를 4가지로 분류한 후 완전 동형동의어, 부분적 동형동의어에 속하는 한자어를 베트남 한자음과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것을 제안한 연구이다. 고상미 외(2020)는 학문 목적 베트남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역번역문을 대상으로 false friends 현상을 수집하여 false friends의 원인을 규명하고 분류함으로써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 한자어를 학습하는 데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실험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차별된다.

이렇게 한자어 교육에 주제가 집중되다 보니 어휘 교육 방법이나 어휘 교재 개발 등 어휘교육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어휘교육 연구가 있는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어휘교육 연구는 외연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⁹⁾

1-3 문법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문법교육 연구에는 대조 연구, 교육 방안 연

9) 기타 어휘 교재 개발을 위한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주제로 한 트란 티 반(2022)이 있고, 구체적인 어휘와 관용구에 대한 교육 연구로 부이 티 미린(2019)(신체 어휘), 남미정(2020)(떡다), 김억조(2020)(‘눈’ 관용구), 이채미·김억조(2022)(‘밥’의 확장 의미) 등이 있다.

구, 문법 항목의 위계화, 문법성 인식, 그리고 오류 등을 주제로 한 연구가 있다.

조명숙(2005)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기본적인 음운, 어휘, 문법을 대조한 것이고, 응웬 옥 빈항·박덕유(2019)은 재귀 표현, 응웬 티 투 하(2019)는 이동동사와 구문, 응웬 티 푸엥 투·양명희(2021)는 내포문을 대조한 연구로 대조 연구는 중국어와 비교하면 그 수가 매우 적다.

대조 연구는 교육 방안 연구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응웬 티 꾸잉안·김경표(2018), 응웬 티 꾸잉안(2020나)이 그런 예인데 전자는 ‘-더라’, 후자는 이유·원인 표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응웬 티 꾸잉안·김경표(2018)는 베트남어 지각동사 ‘thấy’와 한국어 ‘-더라’를 대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응웬 티 꾸잉안(2020나)은 이유·원인 연결 표현의 통사적 제약을 대조 분석하고 각 항목에 대한 체감 난이도와 사용 빈도 조사를 하여 계량적 방법을 위계화에 적용하였다. 학습자의 체감 난이도를 문법항목의 위계화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발전적이다.

김효정(2022)은 ‘-겠-’과 ‘-(으)ㄴ 것이-’를 대상으로 문장 종결법 제약과 용언 결합의 제약에 대한 베트남인 학습자의 문법성 인식을 연구한 것으로, 베트남어 양태 부사 ‘chắc’(아마)와의 대조 분석을 통해 문법성 판단 검사를 실시하였다.

문법교육 연구에서 오류 연구는 그 수가 가장 많다. 김지숙(2007)에서부터 이병운(2011), 응웬 티 번(2019), 백인옥(2022), 판 황미 트엉·권순희(2018), 응웬 티 프엥 투·박미은(2022), 이지성 외(2022) 등이 있다. 그렇지만 조사, 어미, 경어법, 수여 동사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류 연구와 비교하면 아직 양적, 질적으로 부족함이 많다.

이처럼 문법교육 연구에서는 대조 분석, 문법성 판단 테스트, 오류 분석 등 문법을 명시적으로 교수하기 위한 지식과 이론을 탐구하는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연구자의 협업

이나 양 언어에 능숙한 연구자들이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해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1-4 의미·화용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의미·화용, 문학, 문화교육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이중 그래도 숫자가 많은 것은 의미·화용 교육 연구이다. 의미·화용교육 연구로 이해영(2011), 이해영·정혜선(2019), 이해영·쩨 티 투 프엉(2020)은 추측 양태의 습득과 은유, 함축 등을 주제로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¹⁰⁾

이해영(2011)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양태 표현(양태부사, 양태동사, 우언적 구성, 선어말어미 ‘-겠-’)의 습득 양상을 질적, 양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6개월간의 종적 연구(15명), 27명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 결과, 문법 장치보다 어휘 장치를 많이 사용하며 양태부사의 습득은 거주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숙달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유경 외(2019)의 분석에서 기술했듯, 종적 습득 연구에서는 드물게 연구 대상자가 많고 구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해영·정혜선(2019)은 함축에 대한 이해와 숙달도, 거주 경험과의 상관성을 연구한 것으로 이해영(2011)과 다르게 두 요인(거주기간과 숙달도)이 모두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해영·쩨 티 투 프엉(2020)은 앞의 두 연구의 후속 연구라 할 수 있다. 은유의 이해가 숙달도와 관련되는지를 연구 문제로 하여 ‘베트남어와 형식, 의미가 같은 은유’(A1)와 ‘보편적 상식적 지식에 관련된 유형’(B1), ‘베트남어에도 있는, 의미가

10) 이해영 교수는 베트남인 학습자 외에도 다양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화용 연구를 하고 있다.

11) 이에 대해 이해영(2011)은 실험 참여자의 평균 거주 기간이 24.3개월로 조사되어 화용 습득에 거주 경험이 덜 민감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전혀 다른 은유'(A2)와 '베트남어에 없는, 한국어 문화 특수성을 반영하는 은유'(B2)를 다중 선택 설문 방법을 활용하여 베트남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2, 3학년 학생(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세 연구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습득 연구인 한편 화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로, 함축과 은유 표현을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유형화하고 있다는 점 또한 흥미를 끈다.

화행에 대한 연구는 칭찬반응 화행을 다룬 박소연(2019가, 2019나), 거절화행을 다룬 윙티 탄 프영 · 김영순(2019), 요청화행을 다룬 윙티 탄 프영 · 김영순(2020), 지현진(2021)과 불손표현에 대한 황선영(2020)이 있다. '칭찬반응, 불평, 거절, 요청' 등은 다른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화행 연구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데 주로 한국어 모어화자와 해당 언어권 학습자와의 비교를 주내용으로 한다. 이중 황선영(2020)은 한국어 모어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베트남인 학습자를 비교한 연구로 (각 65명), 한국어 모어화자와의 비교뿐 아니라 언어권별 학습자 비교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손, 불손, 거짓 공손, 거짓 불손의 네 유형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학습자의 모국어나 대화 상대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현정 · 김선정(2020)은 불평화행의 함축에 대한 한국어 모어화자와 베트남인 학습자를 비교한 연구이다. 한국어 모어화자가 상대방의 체면을 보호할 수 있는 함축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데 비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함축 표현을 인지하고 있으나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황선영(2020)과 유사한 결과로 사회적 지위라는 변인이 문화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화용 능력의 미발달 때문인지 그 원인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권별 학습자들의 화용 대조 연구는 화용교육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인데 이에 대한 연구 방법론과 실험 결과의 비교, 문화 내용 대조 등은 앞으로 폭넓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1-5 문학, 문화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가능성은 황 티 장(2017)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 티 장(2017)은 한국어 통사 지식의 전수에 기울어져 있던 초창기의 교수·학습 목표와 교수·학습 방법을 변화해야 하며 베트남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식성을 형성하게 하는 데에 교육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문학을 비교 검토하는 활동을 문식성 교육 실천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김지혜(2020), 김지혜·황 티 장(2020가, 2020나)은 김유정의 소설 감상문, 현진건의 ‘사립정신병원장’의 감상문, 정지용의 시 ‘향수’ 감상문을 통해, 진가연·왕임창·황 티 장(2022)은 한국의 <아기장수> 설화와 중국, 베트남의 설화를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한국어교육을 접목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교육이 언어교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화, 사회, 역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은 응웬 티 프엉 마이(2009), 호 티 투 호영(2014)과 문화교육 현황에 대한 부리 킴 루안·이길원(2014), 쩌 티 호영(2017) 등이 있다. 응웬 티 프엉 마이(2009)는 한국 언어·문화교육의 방법으로 드라마를 활용한 기능 통합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드라마 대본을 읽기, 듣기, 말하기 자료로 활용하고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대본을 다시 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호티 투 호영(2014)은 한국과 베트남의 창세신화, 건국신화, 영웅신화를 비교하여 양국의 신화에 내포되어 있는 사상이 현재의 정신문화뿐만 아니라 실생활 문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대표적인 신화를 예시하여 문화 교수·학습지 도안을 제시하였다. 두 편 모두 베트남인 연구자의 연구로 교육 방안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교문화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부리 킴 루안·이길원(2014)은 문화교육 현황이라기보다 베트남의

한국학 전공 대학의 교육과정과 한국의 지원을 알림과 동시에 한국학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이다. 그리고 켄 티 호영(2017)은 베트남의 한국어학과와 한국학과의 교육과정 검토를 통해 학교마다 한국문화 관련 과목 수의 비중이 다르지만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모두 높으며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베 문화 대조의 성격을 갖는 한국문화 교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듯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학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앞으로 문화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2. 한국어교육 교수·학습 연구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연구는 기능교육과 학습전략, 그리고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인 동기, 불안, 의지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는 응웬 티 꾸잉안(2020가)에서 지적되었듯 그 수가 적고, 교사 요인에 대한 논문도 적다.

2-1 기능교육 연구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기능교육 연구로 쓰기에 대한 것은 이주영(2021), 강수정(2022)이, 읽기에 대한 것으로는 강지원(2018), 이다슴(2020가, 2022)과 쓰기능력과 읽기능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이지혜·김수미(2018) 등이 있다.

이주영(2021)은 베트남 중급과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직접쓰기와 번역쓰기를 통해 나타나는 베트남 학습자들의 모국어 영향 및 쓰기 특징을 연구한 것으로, ‘쓰기 형식과 내용 구조’, ‘구문론적 특징’, ‘수사적 특징’으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았다. 강수정(2022)은 베트남인 학습자(5급) 1명을 대상으로 메타인지전략(상위인지와 인지전략)을 사용하여 쓰기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쓰기능력의 향상을 고찰한 사례연구이다. 이

처럼 학습전략을 기능교육에 활용한 연구는 쓰기뿐 아니라 읽기교육에서도 응용되고 있다.

강지원(2018)은 사고구술전략을 읽기에 적용하였고, 이다슴(2020, 2022)은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과 읽기 질문 생성 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강지원(2018)은 베트남인 중급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사고구술전략을 사용하여 읽기를 진행하는 실험을 하여 사고구술전략을 활용한 읽기 수업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킴을 검증한 연구이다. 이다슴(2022)은 베트남인 학습자 23명을 대상으로 읽기 과정에서 초, 중, 고급 학습자들이 만들어 내는 질문의 수와 유형 등 그 양상을 분석한 연구이다. 읽기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생성해 내는 질문이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 연구로 의의가 있으나 그 영향을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지혜·김수미(2018)는 베트남인 고급 학습자 29명을 대상으로 읽기 능력과 쓰기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두 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한국어 쓰기에서 어휘, 문법,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한 학습자들이 한국어 읽기에서 더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고 한국어 쓰기 경험만이 쓰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기능교육의 주제는 학습전략이 쓰거나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특정 언어권의 학습자에게만 적용되는 연구로 보기 어려우나 이제까지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전략이 베트남인 학습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2 학습자 요인 연구, 교사 연구

제2언어 습득에 있어 언어학적 연구와 다양한 교수법이 한계를 지닌

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학습전략에 대한 연구가 특정 언어권별, 특정 집단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홍종명(2017가, 2017나)은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학습전략 연구로, 홍종명(2017나)은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 내 베트남 학생들(239명, 1~3급)을 대상으로 SILL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전략 사용 양상을 조사하고 학습자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베트남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상위인지전략과 사회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일반적인 경향이다. 학습자들이 대부분 초급이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성별, 연령, 한국어 숙달도, 학력, 외국어 학습 경험 등을 변인으로 분석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형길·국지수(2017)은 듣기 전략에 대한 연구로 중국인과 베트남인 학습자 102명을 대상으로 듣기 전략을 조사하고 숙달도와 언어권에 따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 학습자들은 듣기 전략을 인지적 전략>사회적 전략>상위인지적 전략>정의적 전략의 순으로 사용하였다.¹²⁾ 베트남 학습자가 중국 학습자에 비해 4가지 전략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인지적, 사회적 전략의 평균이 높았다.¹³⁾ 이러한 연구 결과가 교수·학습 자료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학습자의 불안, 동기, 의사소통 의지 등의 정의적 요인은 제2언어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학습자의 불안, 동기 등 정의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이다.

먼저 베트남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읽기 불안 연구로 이다슴·박성희(2019)¹⁴⁾, 이다슴(2020나)이 있다. 이다슴·박성희(2019)는 부산

12) 인지적 전략을 가장 높게 사용한다는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13)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홍종명(2017나)와는 조금 다른 결과이다. 이것이 학습자의 숙달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14) 제1저자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조교수, 교신저자는 부산과학기술

의 B대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68명을 대상으로 Satio, Horwitz & Garza(1999)가 개발한 외국어읽기불안척도(FLRAS)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한 것이고, 이다슴(2020)은 이 연구의 후속 연구로 11명의 베트남인 중급 학습자를 인터뷰하여 읽기 불안 양상과 원인을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 두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읽기 수업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으로 읽기 전 (단어와 문법에 대한) 학습, 읽기 전략 교수 강화, 학습자들이 잦은 오류를 보이는 발음 연습, 세심하고 긍정적인 피드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베트남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 동기 연구에는 손춘섭(2021, 2022)¹⁵⁾이 있고, 자기결정성 동기(홍종명 2017라; 박현진 2020), 탈동기¹⁶⁾(홍종명 2017다; 민혜경·정진현 2019), 자기효능감(강귀종·조위수 2018; 박현진 2021가), 말하기 효능감(강소산 2019), 의사소통 의지(박현진 2021나)를 핵심어로 한 연구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홍종명(2017라)은 한국어교육기관의 베트남인 학생들(239명, 1~3급)을 대상으로 박병기 외(2005)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결정성 동기를 조사한 연구이다. 조사 결과 여섯 개의 자기결정성 유형 중 확인된 조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통합조절, 내재적 동기, 내사조절, 외적조절 순으로 나타났다. 내적 동기에 가까운, 확인된 조절, 통합 조절, 내재적 동기가 높게 나타난 것을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내적 동기화와 연관하여 해석하고 있다. 박현진(2020)¹⁷⁾ 역시 자기결정성 동기에

술대학교 자동차공학계열 조교수로 2인 모두 한국어교육 전공자가 아니다.

- 15) 손춘섭(2021, 2022)는 광주, 전남 대학에 재학 중인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그들이 내재적 동기보다 외재적 동기가 더 크다고 하였다.
- 16) 한국어 학습자의 탈동기화 요인에 대한 첫 연구는 김지영(2016)의 「한국어 학습자의 탈동기화 요인 연구」(새국어교육 107)이다. 민혜경·정진현(2019)에서는 ‘탈동기’라는 직역어 대신 ‘학습동기 저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17) 박현진(2020:172)에 따르면 과거에는 동기를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하여 연구에 임했다면 오늘날에는 Ryan

대한 연구로 전주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베트남인 학부생(2학년, 21명)을 대상으로 박병기 외(2005)의 조사지를 이용하여 자기결정성 동기의 특성과 동기유형 간 관계를 분석하고,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업성취도와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확인된 조절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통합된 조절, 내사조절, 내재 동기, 외적 조절의 순으로 나타나 홍종명(2017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베트남인 학부생의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업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세부 유형인 확인된 조절이 학업성취도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확인된 조절 유형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두 연구 모두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기결정성 동기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 결과를 실제 교수·학습에 어떻게 응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홍종명(2017다)은 탈동기 요인과 학습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¹⁸⁾ 베트남 학습자들의 탈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학습부담’과 ‘시험요인’이었다. 베트남 학습자들의 탈동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조언어학적 접근들 통한 교수와 학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민혜경·정진현(2019)은 대학기관 한국어과정에 재학 중인 83명(초급~고급)를 대상으로 Dörnyei(1998)에서 제시한 9가지 학습동기 저하요인에 바탕한 설문조사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학습 기간이나 한국어 숙달도에 상관없이 ‘자신감 결여’와 ‘한국어 교재의 부적합성’이 저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혜경·정진현(2019)은 홍종명(2017라)보다 설문대상자가 적기는 하나 초급~고급의 학습자를 포함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된 결과이다. 그러나 결론에서 기술하였듯 양적 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질

& Deci(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나온 자기결정성 동기(self-determination motivation)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18) 여숙림(2015)과 김지여(2016)를 참고하여 한국어교육 맥락에 맞게 모두 7개 요인(학습 부담, 학습심리와 태도, 교사 요인, 학습 내용, 시험, 학습 환경, 외적 요인) 40문항으로 재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적 연구를 통해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강귀중·조위수(2018)는 중급 수준의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연구이다. 앞선 연구와는 달리 학습동기가 전반적으로 강한 편이고,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학습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듯 분석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트남인 학습자들에 대한 자기효능감 연구로 강소산(2019), 박현진(2021가)도 있다. 강소산(2019)은 베트남어권 학습자(251명)의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로, 말하기 효능감이 6점 만점에 3.11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말하기 효능감의 요인 중에 인정효능감이 가장 낮아 전반적으로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했을 때 베트남인 학습자는 토론하기, 다양한 문법과 단어 사용하여 말하기, 자연스러운 억양 사용에 대한 효능감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토론 교육과 억양 교육, 다양한 문법과 단어를 사용한 말하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현진(2021가)은 전주 소재 대학의 베트남인 학부생(21명, 2~5급)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문항 및 구성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김아영·박인영(2001)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28개 문항)를 사용하였고, 요인별로는 자기조절효능감>과제난이도 선호>자신감의 순으로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모든 요인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자가 학습을 전적으로 주도하기보다 학생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수행하여 성공하는 경험을 갖게 하도록 교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현진(2021나)는 전주 소재 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재학중인 베트남인 학부생 21명(3급 이상)에 대한 설문조사¹⁹⁾와 5명의 포커스그룹 인터뷰(4급 이상)를 통해 베트남인 학생들의 의사소통 의지의 특성을 살

펴보고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설문조사 결과 사용기 능별로 이해>말하기>쓰기>읽기 순으로 의사소통 의지가 높게 나타났 고, 의사소통 의지와 학업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의지 자체가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의의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이다.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베트남인 학습자들에 대한 학습전략, 불안, 동 기, 자기효능감, 의사소통 의지 등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목적보다 취업 목적으로 한국으로 유학 온 베트남인 학습자들의 특성을 살피고 이에 알맞은 교수·학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거나 초급 학습자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 베트남인 학습자들 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그에 맞는 여러 교육 방안도 제시되어 한국어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러한 연구 결과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과 그 효과 를 검증하는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연구는 쉽게 찾아 보기 어렵다. 또한 같은 연구 내용에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경우도 있어 그 원인이 분석되어야 하고 조사 방법이나 통계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여러 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인 학습자를 교수하는 교사에 대한 연구는 이수미(2019)가 있 다. 이수미(2019)는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인 교사와 베트 남인 한국어 교사의 한국어교육 경험을 기술한 연구로, 베트남인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집단 면담과 연구일기를 통해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교사의 자질이나 재교 육을 주제로 한 교사 연구가 많은 반면 예비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 사 경험에 대한 연구는 쉽게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는 더

19) MacIntyre et al.(2001)이 개발한 의사소통의지 척도(Willingness To Communicate inside·outside the classroom Scale: WTCS)의 2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2-3 교육과정, 교재 개발 등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베트남인 학습자를 가르치는 베트남인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경험에 기반한 강수정·전뽀뜨(2021)가 있고, 베트남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소개한 글에서 대학별 커리큘럼을 확인할 수 있다. 교재 개발과 관련한 연구로는 이미혜(2009)가 있는데, 이미혜(2009)는 2008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여 베트남 대학에서 활용할 현지화 한국어 교재(종합 한국어 초급 1(2008),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초급 2(2009)) 개발을 위해 현지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학습자 및 교사의 요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한정된 수의 학습자, 교사를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내용에 있어서도 주제나 기능 선정, 구체적인 상황 선정, 문법기술 방법, 문화 항목 등 교재 개발을 위한 세부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는 하나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현지 교재 개발에 대한 유일한 연구 보고로 의의가 있다.

김윤희(2021)와 김윤희·진재섭(2022)는 광주에 소재한 대학의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전공 핵심역량 자기평가와 요구도와,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김윤희(2021)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베트남인 학습자(1~4학년, 40명)들은 한국어교육 실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척도가 타 역량(한국어교육 지식 역량, 문화간 소통역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통·번역 역량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에 대한 요구는 높게 나타났다. 김윤희·진재섭(2022)은 한국어교육과, 물류무역학과, 호텔관광경영학부의 베트남 유학생(43명)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조사 결과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고 문화 체험 및 한국의 여러 명소들을 탐방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연구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V. 결론

본고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내용과 교수·학습을 주제로 한 학술지 논문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교육 내용에서는 의미와 화용, 문학과 문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발음과 문법, 어휘에 대한 연구가 많기는 하나 아직도 더 연구되어야 할 주제가 많으며 교육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의 제시나 교육 방법의 검증이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는 교육 내용보다 필요한 연구가 더 부족한 실정이며, 기능교육과 학습전략, 그리고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 교사 요인에 대한 연구 등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인 다음으로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연구는 한국어교원 역량 향상이라는 정책 지원과 함께 우수한 베트남인 연구자들이 늘어나며 양적, 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음을 연구 결과 검토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외국어교육은 일방적 교육이 아니라 상호적 교육이다. 특히 목표어 교사가 타언어권의 학습자들을 가르칠 때 타언어의 언어 지식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구도 필요하고 베트남인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 교육 연구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방법과 주제의 연구물들이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Ⅰ 참고문헌

- 강귀종·조위수(2018),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자기 효능감의 관련성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6,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31-252.
- 강소산(2019),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 연구」, 『새국어교육』 119, 국어교육학회, 345-373.
- 강수정(2022), 「메타인지 전략을 적용한 베트남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쓰기교육 사례연구」, 『다문화와 평화』 16-2,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155-187.
- 강수정·전반뜨(2021), 「베트남인 교수자의 국내 베트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경험 사례 연구 -교육과정 생성 관점에 근거한 교사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 실태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한글』 331, 한글학회, 227-271.
- 강승혜(2017),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을 기초로 한 한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 『새국어교육』 110, 국어교육학회, 121-146.
- 강지원(2018), 「사고기술 전략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와 문화』 23,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5-19.
- 고상미·응우옌티하이장·백승주(2020), 「역번역문에 나타난 베트남어와 한국어 False Friends 현상 연구」, 『인문학연구』 59,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63-191.
- 김현정·김선정(2020),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에 나타난 함축 사용 양상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1,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153-172.
- 김억조(2020), 「‘눈’ 관용구의 문자적·비유적 의미 인식 실태 연구」, 『語文學』 150, 한국어문학회, 3-30.
- 김윤희(2021),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ㄹ/ 발음에 대한 음향

- 음성학적 분석, 『漢城語文學』 45, 한성어문학회, 1-22.
- 김윤희(2021), 「한국어교육 전공 핵심 역량에 대한 베트남인 학습자의 인식 연구」, 『인문사회 21』 12-5, 인문사회 21, 1295-1310.
- 김윤희 · 진재섭(2022),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베트남 유학생의 인식 연구」, 『인문사회 21』 13-5, 인문사회 21, 3693-3704.
- 김지숙(2007),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오류 연구」, 『한국어교육』 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9-71.
- 김지영(2016), 「한국어 학습자의 탈동기화 요인 연구」, 『새국어교육』 107, 국어교육학회, 367-397.
- 김지혜(2020), 「한국어교육에서 김유정의 소설 교육의 지평 -베트남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감상문을 통해 본 문학교육의 가능성-」,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4-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7-240.
- 김지혜 · 황티장(2020), 「모국문학에 대한 지식이 한국문학의 이해에 주는 영향력: 베트남 대학생 독자의 『사립정신병원장』 감상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4, 인문사회 221, 233-248.
- 김효정(2022),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추측 표현 ‘-겠-’과 ‘-(으)ㄹ 것아-’ 문법성 인식 연구」, 『새국어교육』 131, 국어교육학회, 317-340.
- 남미정(2020),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모국어 전이 예측 가능성 연구 -베트남어 ‘än’과 한국어 ‘떡다’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7-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9-46.
- 남은영 · 이숙진 · 박혜란 · 정미선(2019), 「베트남 학습자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16-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97-129.
- 류 투 안(2011),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한자어 어휘력 향상 방안 모색 -한자음을 중심으로 하여-」, 『언어사실과 관점』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73-208.
- 민혜경 · 정진현(2019),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동기저하요인 분석」, 『한국민족문화』 7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3-219.

- 박소연(2019가), 「한국인 모어 화자와 베트남 유학생의 칭찬 반응 화행 비교 연구」, 『한국언어문화』 69, 한국언어문화학회, 51-89.
- 박소연(2019나), 「한국어 학습 환경에 따른 ‘칭찬 반응 화행’ 전략 사용 양상 연구 -KSL, KFL 환경에서의 베트남인 대학생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5-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31-162.
- 박시균 · 김지영(2019가), 음성실험을 통한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어중 경폐쇄음 교육 방안 모색」, 『우리말연구』 57, 우리말학회, 1-28.
- 박시균 · 김지영(2019나),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폐찰음 발음에 대한 청취 · 음향 음성학적 연구」, 『국어문화』 72, 국어문화회, 421-448.
- 박시균 · 김지영(2019다), 「베트남인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폐찰음 인지 연구」, 『우리말연구』 59, 우리말학회, 177-201.
- 박시균 · 류연이(2019),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순모음 인지와 산출 연구」, 『언어학』 85, 언어학회, 139-172.
- 박종호(2017),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어휘 오류 유형 분석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1-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361-383.
- 박현진(2020), 「베트남인 학부생의 자기결정성 동기 분석 -전공 진입 후 학습자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6-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69-194.
- 박현진(2021가), 「베트남인 학부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특성 연구」, 『문화와 융합』 43-1,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937-955.
- 박현진(2021나), 「베트남인 학부생의 의사소통 의지 연구」, 『국어교육』 172, 한국어교육학회, 189-228.
- 백인옥(2022)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부사격조사 사용의 오류 분석 및 교육지원방안 -조사 ‘에’, ‘에서’의 사용 오류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3, 인문사회 21, 1645-1660.
- 부이 킴 루언 · 이길원(2014), 「베트남의 한국 언어 · 문화 교육 현황에

-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1-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79-106.
- 부이 티 미린(2019), 「한국어와 베트남어 속담·관용구에 나타난 머리 부분 신체어휘 -빈도와 결합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14-1, 한국어교육연구소, 5-39.
- 부타잉 하이(2017),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유의어 교육방안 연구」, 『한국어와 문화』 21,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107-142.
- 손유진·장혜진(202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한자어 대응 분석을 통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교육 방안 연구 - 『함께 배워요 한국어 1』의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76, 국어교육학회, 35-56.
- 손춘섭(2021),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대한 고찰」, 『光神論壇』 31, 광신대학교, 159-176.
- 손춘섭(2022),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에 대한 고찰: 베트남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17, 한국어교육연구학회, 79-99.
- 안성민(2022), 「이중모음 /-/의 발음 오류 양상과 특성: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81, 국어문화회, 557-578.
- 윤혜숙(2003),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 방안 : True Friends와 False Friends 목록 활용 True Friends & False Friends」,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45-168.
- 윤 티 탄 프영·김영순(2019), 「비교문화적 화용론 관점에서 본 한국어·베트남어 거절화행에 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57-184.
- 윤 티 탄 프영·김영순(2020),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화행 실현양상에 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83-113.
- 응웬 옥 빈항·박덕유(2019),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재귀 표현 대조 연구」, 『韓民族語文學』 83, 한민족어문화회, 45-78.

- 응웬 티 꾸잉안(2020가), 「베트남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한국어교육연구』 12, 한국어교육연구소, 151-175.
- 응웬 티 꾸잉안(2020나),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이유·원인 연결형 문법 항목의 난이도 위계화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13, 한국어교육연구소, 51-82.
- 응웬 티 꾸잉안·김경표(2018),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더라’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5-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5-276.
- 응웬 티 번(2019), 「베트남인 학습자의 조사 오류 경향 분석」, 『한국어교육연구』 14-1, 한국어교육연구소, 85-102.
- 응웬 티 투 하(2019), 「한국어와 베트남어 이동 동사의 용법 대조 연구 -‘가다/오다’와 ‘đi/đến’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58, 우리말학회, 1-21.
- 응웬 티 프영 마이(2009), 「베트남 학습자들의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6-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91-211.
- 응웬 티 프영 투·박미은(2022),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관형사형 어미 오류 연구 -한국어 수준별 오류 양상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79, 한민족문화학회, 213-244.
- 응웬 티 프영 투·양명희(202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내포문 비교·대조 연구」, 『語文論集』 88, 중앙어문학회, 381-411.
- 응웬 티 후옹 센(2014),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오류 양상 연구」, 『국어교육연구』 5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11-232.
- 이경훈(2022), 「초분절음운(억양) 시각화 훈련이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베트남어권 (중급)단계 학습자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87, 청람어문교육학회, 263-285.
- 이다슴(2020가),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전략 사용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459-484.

- 이다슴(2020나), 「인터뷰를 통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불안 연구」, 『우리말연구』 61, 우리말학회, 143-182.
- 이다슴(2022),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질문 생성 양상 연구」, 『독서연구』 65, 한국독서학회, 263-278.
- 이다슴 · 박성희(2019),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불안 연구: 초·중급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71-289.
- 이미혜(2009), 「베트남 지역 한국어 현지화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2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9-149.
- 이병운(2011), 「베트남인 학습자의 작문 오류 경향 분석」, 『우리말 글』 52, 우리말글학회, 105-130.
- 이병운(2012),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사용 오류경향 분석」, 『교사교육연구』 51-2,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 313-322.
- 이수미(2019), 「베트남인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한국어교육 경험에 대한 연구」, 『교사교육연구』 58-3,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 311-324.
- 이유경 · 이승연 · 최은지 · 이선영(2019), 「한국어 학습자 문법 발달 연구의 성과와 과제」, 『Journal of Korean Culture』 46,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101-137.
- 이주영(2021), 「번역쓰기와 직접쓰기를 통해 나타난 베트남인 학습자의 쓰기 연구 -주장문 쓰기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29,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15-249.
- 이지성 · 르우티킴옌 · 도티프영로안 · 이준환(2022),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수어 동사 구문 오류 양상 조사와 교육 방안 모색 -언어 유형적 차이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74, 우리어문학회, 635-676.
- 이지혜 · 김수미(2018),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의 상관관계 연구 -학술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

- 화』 14-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47-174.
- 이채미 · 김억조(2022), 「한국어 ‘밥’의 의미와 한국어 교육적 접근」, 『국어교육연구』 7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77-107.
- 이해영(2011),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추측 양태 습득」,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335-360.
- 이해영 · 정혜선(2019), 「숙달도와 거주 경험에 따른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함축 이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39-262.
- 이해영 · 썬 티 투 프영(2020), 「은유 유형과 숙달도에 따른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은유 이해」, 『한국어교육』 3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3-255.
- 이현희 · 권경근(2022), 「운율단위에서 나타나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연음 현상 연구」, 『우리말연구』 68, 우리말학회, 265-292.
- 장경남 · 유광복(2022),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의 한국어 겹받침 발음 비교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8-6, 국제문화기술진흥원, 637-646.
- 장미원(2000), 「한국어-베트남어 사전 편찬에 관한 연구」, 『베트남연구』 1, 한국베트남학회, 181-204.
- 장혜진(2018가), 「베트남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에 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 『한국어학』 80, 한국어학회, 211-234.
- 장혜진(2018나),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두 파찰음 발음 유형과 음향적 특성」, 『겨레어문학』 61, 겨레어문학회, 363-385.
- 장혜진(2018다),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두 폐쇄음에서 나타나는 음향적 특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62, 우리어문학회, 375-400.
- 장혜진(2019가), 「베트남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어두 폐쇄음 지각 단서」, 『우리어문연구』 64, 우리어문학회, 387-410.
- 장혜진(2019나),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구 실현 양상 - 음운구 성조 유형과 성조 간 음높이 차이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63, 겨레어문학회, 333-353.

장혜진(2020),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어문논집』90, 민족어문학회, 241-270.

장혜진(2022),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두 치경 마찰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어문논집』 94, 민족어문학회, 155-178.

전형길·국지수(2017),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전략 사용 양상 연구 -중국인 학습자와 베트남인 학습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10, 한국국어교육학회, 281-303.

조명숙(2005), 「한국어·베트남어 대비를 통한 문법 교육」, 『국어교육연구』1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21-350.

지현진(2021), 「상황 맥락에 따른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 수행 양상 연구 -한국어 모어화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3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25-355.

진가연·왕임창·황 티 장(2022), 「다자적 상호텍스트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방안 고찰 -한국 <아기장수>, 중국 <나타요해(哪吒鬧海)>, 베트남 <타잉쩡(Thánh Gióng-扶董天王)->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78, 한국언어문화학회, 229-266.

전 피 흐영(2017),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 현황」, 『한국어교육연구』 12-2, 한국어교육연구소, 127-142.

최경복·박시균(2021),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종성 유음 /ㄹ/ 발음 오류 분석」, 『우리말연구』 64, 우리말학회, 181-209.

최지영(2022), 「유학생의 어간말 자음군 선택 및 실현 양상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말연구』 63-19, 한말연구학회, 1-18.

최효선(2022), 「한국어 이중모음의 발음 분석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5-2,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79-97.

트란 티 반(2022),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교재 개발 기

- 초 연구: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16, 한국어교육연구학회, 167-192.
- 판 황미 트영 · 권순희(2018),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경어법 오류 양상 연구」, 『國語教育學研究』 53-2, 국어교육학회, 290-329.
- 호 티 투 호영(2014),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문화 교육 방안 고찰 -한국과 베트남의 신화 비교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8-6, 한국교양교육학회, 145-168.
- 홍종명(2017가),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탈동기 요인 연구」, 『우리어문연구』 59, 우리어문연구학회, 441-465.
- 홍종명(2017나), 「베트남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전략 분석 연구」, 『語文論集』 71, 중앙어문학회, 407-432.
- 홍종명(2017다),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SILL 문항분석 및 요인 분석 연구」, 『東南亞研究』 27-2,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63-83.
- 홍종명(2017라),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결정성 동기 연구」, 『우리말연구』 51, 우리말연구, 우리말학회, 245-268.
- 황 티 장(2017),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비판적 문식성 교육의 의의 고찰 -한·베 비교문화 텍스트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12-2, 한국어교육연구소, 143-168.
- 황선영(2020), 「중국인,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적 불손 표현에 대한 인식 연구」, 『이중언어학』 79, 이중언어학회, 277-310.

❖ ABSTRACT

A Review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for Vietnamese Korean Learners

Yang, Myunghee
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present future research directions by qualitatively analyzing academic journal papers that focus on educational content a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Vietnamese Korean learners.

The analysis reveal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meaning, conversation, literature, and culture in Korean education. While there are numerous studies on pronunciation, grammar, and vocabulary education, there are still many other topics that require investigation. The presentation of specific educational measures or the verification of educational methods related to the educational content was found to be lacking.

Research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lacks the same level of research as Korean educational content. Language skill education, strategies, and defining factors of learners are the main areas of research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 the futu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various topics to advance Korean language education. Specifically, there should be more emphasis on research concerning the curriculum, textbooks, and teacher factors.

Keywords: Vietnamese Korean learn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tents, Korean teaching and learning, curriculum, textbook development, teacher factors

■ 논문투고일 : 2024. 05. 10

■ 심사완료일 : 2024. 06. 01

■ 게재확정일 : 2024. 06. 11

